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

누군가 대변해 준 내 서글픔

글_송보경 기자

빈손이 없다,
 사랑을 받으려고 해도 빈손이 없어 받지 못했다,
 한 손엔 미움,
 한 손엔 슬픔,
 받을 손이 없었다,
 사랑하지 못했고 사랑받지 못했다
 -김승희 <내어주기> 일부

스러지기 전에 내어주라는 작가의 외침이 마음을 울리는 시다.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는 시인이자 교수인 김승희 씨의 산문집이다. 화가 김점선의 그림이 곁들여진 책의 표지 그림은 서글픔이 배어있는 보랏빛이다. 뉴욕에서 유학중인 딸에게 보내는 편지 '끝끝내 사랑하기'란 제목의 첫 글을 읽어 내려가다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가슴의 통증을 느꼈다. 인생의 밤중을 건너고 있다는 저자의 작은 푸념과 외로움 때문도 아니고, 그런 엄마를 위해 먼 타지에서 위로를 전하는 딸의 애뜻한 마음 때문도 아니다. "사랑할 그 시간"에 우리가 맹렬하게 다른 것들을 하고 있기에 인생을 망치고 있다"는 저자의 말이 칼날처럼 마음을 헤집은 탓이다.

사회에선 교수라는 지위, 집안에선 엄마와 아내, 그리고 또 어떤 이름으로 불려야 할지 저지는 고민한다. 사사로운 감상에 서 시작한 글이나 사회 현상에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적어 내려간 글이나 모두 그 중심에는 '여성의 삶'이 있다. 작가가 성 역할과 정의라는 거대 담론을 논하려는 게 아님을 알겠다. 하지만 여성이 짊어진 희생의 굴레를 굳이 거론하지 않아도 이 땅의 여성들이 감내해야 할 일들은 본질적으로 고통을 내포하고 있다는 회의감이 들만큼 편편마다 마음이 불편하다. 그럼에도 책에 담긴 사랑, 가족, 희망, 여자에 대한 시편들이 뒤이어 나오는 산문 내용과 기막히게 연관되어 있기에 읽기를 멈출 수 없다. 살아 가며 부딪치는 일들에 모두 문제가 있을지언정 의미 없는 닳두리나 무의미한 투쟁을 담지 않아 오히려 연민을 느낀다.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
 김승희 지음 | 김정선 그림 | 마음산책 | 230쪽 | 값 10,000원

그래도라는 섬에서
 그래도 부둥켜안고
 그래도 손만 놓지 않는다면
 언젠가 강을 다 건너 빛의 뗏목에 올라서리라,
 어디엔가 걱정 근심 다 내려놓은 평화로운
 그래도 거기에서 만날 수 있으리라
 -김승희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 일부

작가의 마음에는 그냥 세상과 '그래도'라는 또 다른 세상이 있다. '세속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그냥 세상은 희망의 농도가 열다. 비단 개인의 자질구레한 문제들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누구나의 인생이 그러하듯 우리 삶은 공감대 형성이 잘 되거나 또는 이기적 관점에서 볼 때는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일들뿐이다. 하지만 '그래도'의 가치관은 다르다. 그 세상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증거도 설명도 극히 부족하지만 우리는 모두 '그래도'의 어감만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남는다. 그리고 희망하게 된다. 자꾸 책장을 넘긴다. **한글**